

100% 천연 유래 섬유의

발열 보온 소재

다이이치보는 면, 레이온, 큐프라 혼용에 의한 발열 보온 소재인 메쿠이토를 개발하였다. 셀룰로스 섬유의 성질인 습윤 시의 발열을 이용한 것으로 천연 유래 섬유 100%의 발열 보온 소재로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소재로서 발열 보온 소재인 리얼 핫, 코어 방적사인 하트를도 개발하였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발열 보온 소재는 셀룰로스계 섬유와 합성 섬유의 복합 소재가 주류로, 습윤 시의 셀룰로스의 발열과 합성 섬유의 보온성의 조합을 이용하였다. 이에 반해 다이이치보가 개발한 메쿠이토는 셀룰로스계 섬유 100%로 발열 보온을 실현한 것이다. 큐프라 10%, 편평 레이온 20%, 면 70%의 혼방사를 사용하며, 편평 레이온에 의해 실의 가운데에 공기층을 증가시켜 보온성을 가지게 하였다. 내의 용도 등을 중심으로 환편물로 판매한다.



<그림 1> 천연 유래 섬유 100%로 발열 보온을 실현한 메쿠이토

또한 합성 섬유를 사용한 발열 보온 소재로서 리얼핫도 개발하였다. 코어에 흡수성 아크릴을, 쉬스에 마이크로 아크릴과 편평 레이온을 사용한 코어 방적사를 원사로 사용한다. 셀룰로스의 발열을 아크릴로 보온하면서 흡수 아크릴의 효과로 수분을 보유함으로써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이 소재도 한편물로 판매한다.

그 이외에 다이이치보가 보유한 특수 혁신 정방인 IPX를 활용한 코어 방적사를 사용한 하트를도 개발했다. 코어에 나일론 장섬유, 쉬스에 마이크로 모달을 사용한 것으로, 마이크로 모달의 촉감에 나일론 장섬유의 매끄러움을 결합하여 한편물로서 판매한다.